

건강 칼럼

유행성 전염 조심해야 하는 가을철

노고 푸른 하늘, 선들선들한 바람이 반겨온 가을이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에는 유행성 전염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가을철에는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 쯤쯤가무시병이 기승을 부린다. 이 질환들은 증상이 비특이적이어서 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질환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에 오염된 야생동물 특히 들쥐, 개, 소, 돼지 등의 소변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발생된다. 렙토스피라균은 피부의 상처를 통하여 또는 비발 형태로 눈, 코, 입 등의 점막을 통해 우리 몸에 감염된다. 논밭 등에서 장시간 발을 담그고 작업하는 농부에게 주로 발생되며 사람 사이의 감염은 없으며 평균 잠복기는 일주일에서 보통 정도이다. 임상증상은 매우 다양한데 발열, 두통, 근육통, 결막 충혈 및 호흡기 증상이 주 증상이다.

가을철 고인 물, 웅덩이 또는 흙 등에 피부의 접촉을 피하며 작업 시에는 장화, 장갑과 같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병원을 내원하여 항생제를 투여 받아야 한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유행성 출혈열, 한국형 출혈열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원인 바이러스는 한탄 바이러스, 서울 바이러스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호왕 박사가 1978년 들쥐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를 환자의 혈액에서도 분리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한탄바이러스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호왕 박사는 이 업적으로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보통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이 나고 지역적으로 회복되나 이 바이러스들은 침투한 장기에 출혈을 일으키므로 출혈열이라고 불린다. 사람끼리의 전염은 일어나지 않고 원인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들쥐의 배설물이 건조되어 호흡기를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졌다. 평균 잠복기는 2~3주이며 발열기, 저혈압기, 소변 양 감소, 소변 양 증가, 회복기 등의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예방방법으로는 유행 지역 산이나 들에 가는 것을 피하고 야외에 갈 때는 긴 옷을 입고 풀밭에 눕는 것

을 피하여야 한다. 쯤쯤가무시 병은 가을철 열성 질환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질병이다. 이 질환의 매개체는 참진드기이며, 특징적으로 참진드기가 피부에 붙어 피를 빨아먹은 부위에 가피(딱지)가 동반된 궤양이 나타난다. 잠복기는 1~3주까지 다양하지만 보통 10~12일 정도이다.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 발한, 두통, 결막 충혈, 림프절 종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열 후 1주일 정도 지나면 온몸에 빨간 반점이 나타날 수 있다. 가을철에는 유행 지역의 산이나 숲, 풀밭에 가는 것을 피하고, 특히 늦가을(10~11월까지 포함)에는 절대 잔디 위에 눕지 말고, 야외활동 후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목욕을 하며, 야외활동 시에는 긴소매의 옷과 바지를 착용하며 끈충 기피제를 뿌리도록 한다. 예방이 가장 큰 치료라 되므로 잘 숙지하여 건강한 가을을 보내도록 하자.



정혜운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사설

인구 감소 속수무책인가

전북의 인구가 또 줄었다. 지난 달말에 집계된 인구수가 186만 4729 명이다. 전북의 인구가 2백 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에 한참 못미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에 주목해야겠다. 도내 거주 인구가 갈수록 줄면서 인구 하향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거나 이와 이같은 추세에 대해서 우려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세가 둔화했다는 식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보고로 비쳐가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본보가 저번에 전국의 광역도 중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인구가 줄은 것을 지적했거나 도내의 제반 상황이 안 좋다. 전북도가 전개해온 인구 유입책의 약발이 먹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구 감소세가 둔화했다는 보고만으로는 도민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가 없다. 저출산 현상마저 고착돼 도내 신세대들의 수도 줄고 있다. 학생수가 줄고 있는 걸 보면 고졸 알 수가 있다. 지난해에 비해 초등학교는 2365명이 줄었고, 중학생은 5521명이 줄었고, 고등학생은 1085명이 줄었다.

이같은 현상은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반갑지 않다. 2020년이면 도내 고등학생이 30%나 감소할 거라는 조사 보고가 저번에 보고됐었는데 전북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 2020년이라면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다. 중학생이 대폭으로 줄었으니 이같은 걱정이 허튼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 전북도는 지역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전북도는 도내 거주 인구의 동향에도 주목해야겠다. 완주군의 인구가 남원시의 인구보다 많은 거 말이다. 군내에 읍이 두 개나 되는 완주군이 남원시보다 인구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동부권의 무주 진안 장수도 물론이다. 일자리 문제며 거주 문제며 교육 문제며 교통 문제 등 골치거리가 산적해있다면 도내 거주 인구가 줄어들 턱이 없다. 오히려 마음이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사람만 생겨날 뿐이다. 전북도는 그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독자제언

갑질문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갑질'이란 갑을(甲乙)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한마디로 상대 간에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그 동안 '갑·을' 문제는 민주화와 경제 문제 등 다른 요소에 밀려 그리 주목받지 못하다가 크게 이슈가 된 속히 말하는 '쌍용회합' 사건, '백화점 모녀' 사건 등으로 수면 위에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갑질문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두 번쯤은 누구나 갑질을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 수많은 갑질이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갑질을 했는지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갑질 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



서는 안 된다. 또한 '갑을관계'는 명백히 사라져야 한다. 이에 경멸을 갑질을 더 이상 도덕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사회·경제 분야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9.1~12.9(10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마트·슈퍼 등 유통·서비스업계 종업원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등 악성고객의 불법 행위 ▲건설현장, 식품·유통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범미로 한 금품갈취, 강요행위를 하는 사이버 가짜의 불법행위 ▲기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공갈·강요 등 불법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단속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이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읍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갑' 스스로가 '을'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지며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갑질 문화' 청산은 물론, 국민화합의 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호헌수 무주경찰서 수사과장

독자제언

알면 유익한 교통사고 초동조치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한다고 해도 운전은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 일어나기 마련이다. 단순한 물적 피해만 있을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엔 인명피해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특히나 처음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운전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통에 방해할 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2차 교통사고도 생각해 봐야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들은 초동조치 몇 가지를 숙지하고 있도록 하자. ▲ 일단 정차 후 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 단순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정책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스프레이로 현장을 표시하거나 스프레이가 없다면 휴대 폰으로 현장을 촬영 한 후 교통 차량을 이동 조치해야 한다. ▲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와 같이 운전자들이 몇 가지 초동조치 사항만 숙지하고 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을 것이고, 자신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되는 억울한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유익한 정보를 알고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윤성호 진안경찰서 경무과 과장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농촌 왜소화는 풀어야 할 숙제

전북의 인구 감소가 지금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거의 5천 명이 감소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게 있다. 지역 농촌 왜소화 말이다. 지역인구가 줄고 있는 큰 원인 중의 하나로서 말이다. 농촌 왜소화는 언제고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숙제 풀기는 빠르면 좋을수록 좋다. 농촌의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예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한 바가 있지만 농촌 지역의 인구가 적은 것과 관련해 그 해법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치적인 측면보다 경제적인 판단으로 접근해야 맞다. 농촌 지역의 살림이 파탄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농촌 지역의 경제 문제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올해 쌀값 폭락 문제도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략 난감이다. 그 때문에 갈수록 농촌 왜소화 현상이 속도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 20개구 미만의 마을이 1027곳이나 된다는 보고가 나온 지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의 현황은 더 심각한 거리는 짐작이다. 전북도와 동부권의 지자체는 농촌 왜소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 농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도교육청이 마음을 더 써야겠기에 하는 말이다. 저번에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는데 호남의 인구가 충청의 인구보다 적은 것은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 농촌의 유출된 인구가 전주나 익산 등 도내 도시권으로 유입되기 보다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농촌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소득기반에 신경을 써줘야겠다. 전북도에 지금 그럴 의사가 있는지 궁금하다. 농촌 지역에도 농업 외에 다른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오래도록 농촌 왜소화가 고민이 되고 있는 중에 동부권 지역이 더 심각하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주 진안 장수 3개 군을 합쳐도 그 인구수가 완주군 하나보다 적으니 말이다. 전북도와 동부권 지자체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보고가 조만간 있어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